

【 국내금융 뉴스 】

상수도 고액체납자, 보증보험으로 처분 유예

- 최근 용인시는 택지개발 등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수도수용가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체납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8월부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증권제도를 운영함.
 - 이로써 체납처분이 예고된 500만원 이상의 상수도체납자가 보증보험증권 담보 제공 시 급수 정지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 및 분납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이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금액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케 한 후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임.

- 2009년 7월말 현재 용인시의 500만원 이상 상수도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은 전체 체납금의 약 58%인 9억 9천만원으로 대중탕용과 영업용 업종 자영업자의 체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용인시는 서울보증보험증권(주)과 연 2.4%의 수수료를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기로 협의함.

- 상수도체납액 보증보험증권제도 운영에 따라 500만원 이상 체납수용가는 보증보험증권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용인시 상수도 사업소에 제출하면 됨.

- 이에 용인시는 보증보험증권제도가 수도요금분야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던 제도라며, 경제 위기에 처한 수도수용가 입장을 고려한 시민 편의 행정 구현으로 체납액 추징이 세외수입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임.

(용인시 상수도 체납액 보증보험증권 발급 운영,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수도관리과, 8/4)